

예 배 순 서

1부 08:30 AM
2부 11:00 AM

2021년 10월 31일 인도: 김정국 목사

참회의 기도 <small>Prayer</small>	다	같	이	
* 예배의 부름 <small>Call to Worship</small>	인	도	자	
* 성 시 교 독 <small>Responsive Reading</small>	교독문 104. 종교개혁주일 (통 73)	다	같	이
* 신 앙 고 백 <small>Confession</small>	사도신경	다	같	이
찬 양 <small>Praise</small>	다	같	이	
기 도 <small>Prayer</small>	김대목	장로		
성 경 봉 독 <small>Scripture</small>	로마서 1:16-17	인	도	자
찬 양 <small>Choir</small>	다	같	이	
말 씬 <small>Sermon</small>	부끄럽지 않은 자	김정국	목사	
찬 송 <small>Hymn</small>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통 384장)	다	같	이
헌 금 <small>Offering</small>	다	같	이	
헌 금 기 도 <small>Prayer</small>	사	회	자	
알 림 <small>Announcement</small>	사	회	자	
* 찬 송 <small>Hymn</small>	505장 온 세상 위하여 (통 268장)	다	같	이
* 축 도 <small>Benediction</small>	김정국	목사		

* 표는 다같이 일어서서

오늘의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말씀아침 새벽본문	1 (월)	2 (화)	3 (수)	4 (목)	5 (금)	6 (토)
	롬 13-14	롬 15-16	고전 1-3	고전 4-6	고전 7-9	고전10-12

알리는 말씀

본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은 인사를 나눌 수 있도록 방문카드를 작성하셔서 안내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길 바라며, 예배 후 성도간의 교제도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모임

8:30 am 1부 예배
11:00 am 2부 예배
12:30 pm 워크샵 전체모임
1:00 pm 교육부 PTA 모임

주중일정

(월) 7:30 pm 시카고 아버지 합창단 연습
8:00 pm 정기운영위원회
(화)~(금) 5:45 am 새벽기도
(수) 10:00 am 시카고 어머니 합창단 연습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인도자(온라인)
(목) 9:15 am 사역반 훈련(온라인)
(금) 8:00 pm 가스펠 프로젝트 구약III(온라인)

다음주 행사

8:30 am 1부 예배/ 써머타임 종료
10:00 am 새신자반 모임 I
11:00 am 2부 예배

기타사항

1. 헌당예배시 가나안 장학금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변에 추천할 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알려 주시길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2. 새신자반(5주 과정) 첫모임이 20~21년도 등록 성도님들 대상으로 다음 주일(11/7) 오전 10시부터120호실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기도 바랍니다.

교우동정

등 록 박광석 안수집사 박옥엽 권사 (아론 한나 선교회)
모친상 양자숙 집사(양명국 집사)

* 다음주 예배위원

-안내: 이재희 장로
-헌금: 정윤권 장로
-2부 대표기도: 전승평 장로

지난 주 주일헌금

이상철 박순희 김정화 이홍자 방인덕 조현식 이옥자 이재희 이영일 이필선 이준세 전승평 이상삼 김정국 김길봉 박부명 이영길 이재희 전승평 정윤권 최준택 광창우 김순자 김진호 김태중 나영매 박지환 서재혁 이상철 이보람 이상길 이영일 이을승 임정자 이준세 이찬희 이홍자 장규성 정진원 조용현 차이영 채민병 한상모 정사라 이경희 박광석 박옥엽 조형숙 박순희 마이클조 시카고 어머니/아버지 합창단 무명

오직 믿음으로

루터가 영적으로 방황하는 동안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가 성경으로 직접 눈을 돌리도록 그를 이끌었다. 루터는 성경 연구에 몰두했다. 그는 1513년과 1517년 사이에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강의했다. 특히 로마서 연구는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다. 루터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로마서 1장 17절을 힘써 연구한 결과 ‘오직 믿음’의 원리를 발견했다. 그는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에 크게 실망하며, 그분에 대해 불만을 느끼면서 이 구절에 다시 관심을 집중했다. 마침내 영적 체험을 통해 그의 생각과 마음이 극적으로 변화되었고, 이 구절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의 관점이 크게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는 나중에 당시의 일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나는 큰 열정에 사로잡혀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나를 고민하게 만든 문제는 냉랭한 마음이 아니라 로마서 1장에 있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는 한마디였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싫었기 때문이다. 학자들이 그 말을 사용하는 관습과 용법에 따르면, 그 말은 그들이 일컬은 대로 형식적, 또는 능동적인 의라는 철학적 개념으로 이해해야 했다. 그 개념에 의하면 하나님은 의롭기 때문에 불의한 죄인들을 징벌하셔야 한다.

나는 흠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큰 가책을 느끼는 죄인일 수밖에 없었다. 나의 고행과 참회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나는 죄인을 벌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 비록 신성을 모독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나는 속으로 크게 불만을 느끼며 하나님께 분노했다.

마침내 나는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의 전체 문맥, 즉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에 주의를 집중했다. 그러자 “하나님의 의”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얻게 되는 의’라는 사실이 이해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대로 복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수동적인 의”를 가리킨다.

그 순간 내가 다시 태어나 열린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성경 전체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내게 다가왔다. 내가 기억하는 성경말씀들이 머릿속에서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 전에는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그렇게 싫을 수 없었지만 이제는 더할 나위 없이 사랑스럽고 은혜롭게 다가왔다. 바울이 한 그 말씀이 내게 진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 주었다.”

루터는 자신의 회심을 천국의 문을 발견한 것에 빗대었다. 참으로 훌륭한 비유다. 나는 일평생 야구를 좋아했다. 월드시리즈를 처음 알게 된 네 살 이후로 나는 특히 뉴욕 양키스를 사랑했다. 그러나 양키스 경기장에 직접 가 본 것은 중학교 졸업반이 되고 나서였다.

지금도 터널을 지나 밖으로 나와 경기장을 내려다보며 1루 쪽 관중석 사이를 걸어가던 기억이 난다. 돈 매링리가 1루에서 땅볼을 잡아 처리하고 있었고, 그 왼쪽으로는 본루가 눈에 띄었다. 경기장을 보는 순간 바로 그 자리에 루스, 디마지오, 게릭, 맨틀, 베라와 같은 위대한 양키스 선수들이 섰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다. 나는 양키스 팬으로 텔레비전에서 많은 경기를 지켜보았지만 양키스 선수들이 실제로 경기를 하던 장소를 직접 보는 것은 전혀 색다른 경험이었다. 그곳을 직접 보는 일은 마치 누군가가 1루 쪽 통로의 문을 열어 낙원, 또는 최소한 비깅 세상과 단절된 동산으로 인도하는 듯한, 꿈같은 현실이었다.

물론 이와 같은 어린 시절의 경험은 낙원의 문을 발견하고 새롭게 거듭났던 루터의 경험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진리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켰고, 그 후로 세상은 이전과 크게 달라졌다.

-제이슨 듀싱, <종교개혁의 5가지 원리>중에서-

가정예배 10월 다섯째 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

함께 기도 | 예배를 시작하며 함께 기도문을 읽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공동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하나되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 가족 모두 잘 아는 다른 찬양을 해도 좋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208장, 통246장)

함께 읽기 | 아래 본문을 가족들이 돌아가며 읽습니다

출애굽기 40:17-38

함께 묵상 | 질문을 따라 각자 묵상한 내용을 나눕니다

- 출애굽 제 2년 첫째 초하루에 성막을 완성합니다. 완성된 성막의 각 부분을 기록할 때마다 반복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완성된 성막에 임재하십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성막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34-38절)

함께 나눔 | 한 주간의 일들과 기도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출처: 성서유니온선교회>

CANAAN CHURCH

가나안교회는 선교·교육·봉사를 목표로 1976년 11월 28일 나일스 지역에 세워져, 말씀과 신앙, 믿음과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교회로서, 성경을 바탕으로 복음의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장로교 전통의 독립교회입니다.

예배안내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선교회모임	매월 둘째 주
구역모임	매월 셋째 주

교회학교

유치부	주일 오전 11:00
유년부	주일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AWANA	주일 오후 1:00
금요모임	저녁 8:00

청년회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저녁 8:00

부속

라인댄스반	목요일 오전 10:00
가나안한국학교	토요일 오전 9:30

섬기는 사람들

원로목사	이용삼	847-724-2456
담임목사	김정국	224-577-5229
전도사(유치)	이수정	224-587-3815
전도사(유년)	서줄리	224-612-1315
전도사(Youth)	김태중	224-727-9830
지휘자		1부
		2부
파송선교사	양선한 허목자(중동)	

찾아오는 길



1255 N. Milwaukee Ave., Glenview, IL 60025
TEL: 224-735-2346 www.canaan.org

CANAAN CHURCH

